

- 주요 뉴스: 미국, 10월 일자리 감소 규모 22년래 최대 고용 우려에 금리인하 기대는 증가
 - ECB 주요 인사, 금리인하양적완화 등에 회의적. 유로존 9월 소매판매는 감소
 - 영란은행, 금리 동결. 다만 인하 의견도 상당. 베일리 총재는 AI 버블 가능성 제기
 - 일본 9월 실질임금, 9개월 연속 감소. 다카이치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검토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고용 둔화 우려,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 경제감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AI 버블 논란 재부각, 저조한 10월 고용 지표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일부 기업실적 우려, 미국 증시 영향 등으로 0.7%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내 추가 금리인하 기대 증가 등으로 하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5%, 0.7%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경기둔화 우려,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하락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2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446.9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48.9원, 0.08% 상승). 한국 CDS 강보합

		11/6일	11/5일	전일대비			11/6일	11/5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720.3	6,796.3	-1.12%	국채 금리 10y	미국	4.08%	4.16%	-8bp
	유럽	567.90	571.90	-0.70%		독일	2.65%	2.67%	-2bp
	중국	4,007.8	3,969.2	+0.97%		영국	4.43%	4.46%	-3bp
	일본	50,884	50,212	+1.34%	CDS 5y	한국	23bp	23bp	+0bp
	한국	4,026.5	4,004.4	+0.55%		중국	43bp	42bp	+1bp
환율	달러지수	99.70	100.20	-0.50%	위험 지표	EMBI+	-	276	-
	유로화	1.1547	1.1492	+0.48%		VIX	19.50	18.01	+8.27%
	엔화	153.06	154.12	+0.69%		WTI유	59.43	59.60	-0.29%
	위안화	7.1193	7.1268	+0.11%	원자재	구리	497.4	498.6	-0.24%
	원화	1,447.7	1,449.4	+0.12%		금	3,977.2	3,979.6	-0.0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ì.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0월 일자리 감소 규모 22년래 최대. 고용 우려에 금리인하 기대는 증가

- 고용정보업체 쉐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에 따르면, 10월에 15.3만개의 일자리가 감소. 이는 10월 기준 22년 만의 최대 규모이며, 전월 및 전년동월과 비교할 경우 각각 183%, 175% 급증한 수준. 기업의 AI 사용 확산 및 비용 절감 등이 이번 결과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
- 또한 시카고 연은이 발표하는 10월 실업률 추정치는 4.36%로 9월(4.35%) 대비 상승. 이번 결과를 노동통계국의 공식 실업률로 간주하다면 '21년 이후 최고치. 시카고 연은의 실업률 추정치는 실시간 민간 부문 데이터와 노동통계국의 자료를 결합하여 도출
- 이번 결과로 시장에서는 12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 CME FedWatch의 12월 금리인하 가능성 역시 68.9%로 전일비 소폭 상승. 일부에서는 12월 금리인하를 반대하는 연준 인사들도 고용 둔화 뉴스를 접할 때마다 금리인하 압박을 느낄 수 있다고 평가(Strategas)
- 한편, 금리인하 관련하여 연준 인사들은 상반된 견해를 피력. 마이런 이사는 중립금리 수준에 근접하기 위해 12월 추가 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특히 고용이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
- 반면 클리블랜드 연은의 해맥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높으며, 물가가 노동시장보다 더욱 큰 위험 요인이라고 발언. 이는 금리인하를 반대한다는 의미로 해석. 시카고 연은의 굴스비 총재는 공식적인 물가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금리인하에 나서는 것은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고 언급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트럼프, 관세 관련 대법원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파괴적 결과 발생

- 관세가 없었다면 일본·한국과의 무역협정이 없었다고 지적. 재판에서 패하면 파괴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패소를 대비한 대체안 마련도 검토할 수 있다고 부연
- 전일 있었던 대법원 심리에서 법관들은 관세 부과가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고 평가하고,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피력

■ ECB 주요 인사, 금리인하양적완화 등에 회의적. 유로존 9월 소매판매는 감소

- 권도스 부총재는 현재 금리 수준에 만족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전망에서 목표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예상이 기본 시나리오라고 발언. 슈나벨 이사는 현재 상황에서는 보유한 채권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채권 매입을 의미하는 양적완화를 시행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
- 한편, 유로존 9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0.1% 감소하여 예상치(0.2% 증가) 하회. 이번 결과로 시장에서는 소비 주도의 경기회복에 대한 의구심 증가. 독일의 9월 산업생산 역시 전월비 1.3% 늘어 예상치(3.0% 증가) 대비 낮은 수준. 이에 시장에서는 독일 경제, 특히 제조업의 구조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증폭

■ 영란은행, 금리 동결. 다만 인하 의견도 상당. 베일리 총재는 AI 버블 가능성 제기

- 영란은행은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 최근 성장 및 고용 둔화 등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이 떨어졌다고 평가. 다만 9명의 위원들 가운데 인하 의견이 4명이었으며, 이에 시장에서 12월 금리인하 기대가 증가
- 베일리 총재는 AI 기술의 성장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첨언. 동시에 증시에서 AI 버블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

■ 일본 9월 실질임금, 9개월 연속 감소. 다카이치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검토

- 9월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비 1.4% 줄어 9개월 연속 감소세. 명목임금은 1.9% 늘어 47개월 연속 증가.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동향을 근거로 향후 구체적인 최저임금 인상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언. 또한 성장전략본부에 물가상승를 넘어서는 임금인상이 지속되도록 지시했다고 부연
-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는 자국 내 희토류가 대량으로 매장된 미나미토리시마 인근 해역에서 미국과 희토류 개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1/7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0월 고용보고서 및 11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연준 마이런 이사 발언
- 중국 10월 수출입, 캐나다 10월 실업률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경제, 중산층의 지출감소 등으로 경기침체에 더욱 취약할 우려 - 블룸버그

(‘Jenga Tower’ US Economy Teeters as Middle Class Pulls Back Spending)

- 최근 소득 기준 상위 10%의 소비자가 전체 지출의 절반을 차지. 반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고물가, 고용둔화 등으로 압박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향후 K자형 경기 흐름이 관측. 일부에서는 현 경제 상황이 마치 상층부가 지나치게 무거워 균형을 잃기 쉬운 젠가(Jenga)와 같은 상태일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
- 특히 생필품 물가 상승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섀다운으로 인한 식량 및 보육 서비스 지원 중단 등으로 소비지출 압박이 심화. 이에 일부 기업은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해 저가형 상품개발을 시도하지만, 대체로 기업이 소비 둔화를 크게 우려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 일각에서는 불평등 심화 시 사회불안도 증폭될 수 있다고 지적

■ 연준의 새로운 ‘인내’ 전략, 경제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선택 - 블룸버그

(Federal Reserve’s new patience recognizes reality)

- 연준 파월 의장이 12월 금리인하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 이는 불확실성이 크고 섀다운으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열린 태도를 유지하려는 현명한 선택.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이 상충된 신호를 보내는 상황에서 금리 경로에 대한 과도한 확신은 투자자 오판을 유발하고 연준의 선택지를 제약하기 때문
- 이러한 점에서 최근 FOMC에서 나타난 위원들의 이견은 인위적 만장일치보다 오히려 긍정적. 향후 연준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그 과정에서 각 위원의 견해도 재정비될 전망. 지금은 연준과 투자자 모두 신중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미국 기업의 실적 호조, AI 부문 편중 등으로 지속성에 의구심 - 블룸버그

(AI Is Eating All the Earnings)

- 3/4분기 S&P500 기업의 전년비 주당순이익 증가율은 13.9%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예상치(7.6%) 대폭 상회. 또한, AI를 주도하는 매그니피센트 7을 제외하더라도 동분기 주당순이익이 11% 늘어날 것으로 전망. 이에 AI 이외의 분야에서도 기업이익 증가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기대가 확산
- 하지만, 이는 AI 수혜를 받는 은행, 항공우주, 방위산업 부문의 이익 증가에 기인. 기업별로 소비재(아마존, 테슬라 제외)와 소재 부문 등은 실적 침체가 발생. 아울러 소형주 중심인 Russell2000 기업의 매출은 정체(전년비 1.1% 증가). 소비 감소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기업 전반에서 양호한 실적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가능성

■ 유럽, 과도한 이자사회 복지 지출 부담 등으로 예산 파국에 직면 - 블룸버그

(Europe Is Heading Toward Budgetary Ruin)

- 영국은 26일 발표할 예산안에 소득세 인상, 신규 재산세, 추가 부담금 등 세수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 이는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한 과도한 이자 부담, 세수보다 많은 세출 등에 기인. 이와 같은 문제는 영국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에서도 논란이 많은 의제
- 1년 전, ECB가 유럽 주요국의 사회보장프로그램 위험 직면을 경고했고, 독일 총리는 해당 프로그램 비용 충당이 지속될 수 없음을 인정. 프랑스에서는 정부의 국민연금 수급 연령 조정 등 적자 축소 노력이 국민적 분노를 유발. 정치권 포퓰리즘으로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는데, 이는 노동 의욕 상실과 경제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

■ 미국 제조업 부활, 노동 집약적 모델 답습보다 혁신·자본 투자 등이 요구 - WSJ

(Why Manufacturing's Last Boom Will Be Hard to Repeat)

■ 미국 물가연동채 투자,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실제 수익은 기대 이하 - 블룸버그

(Inflation-Protected Bonds Fail a Key Test: They Don't Help When Inflation Is High)

■ 미국 이민정책에 의한 우수 노동력 공급 부족, 고용 둔화 지속 초래할 소지 - WSJ

(Worker Shortage Continues in a Declining Job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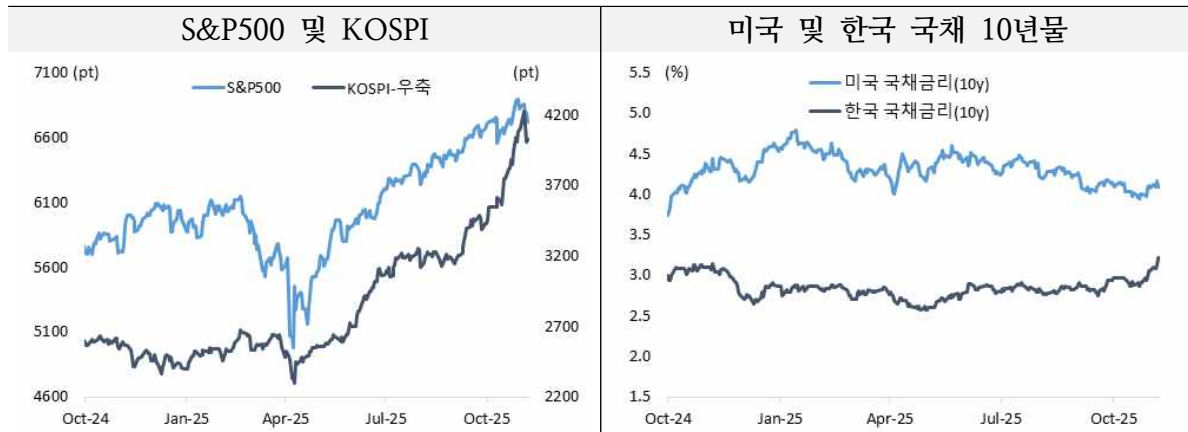
■ 미국의 강압에 의한 동남아 국가들과의 무역협력 강화, 실효성에 의구심 - Financial Times

(The US can't force Asian countries into its trade ca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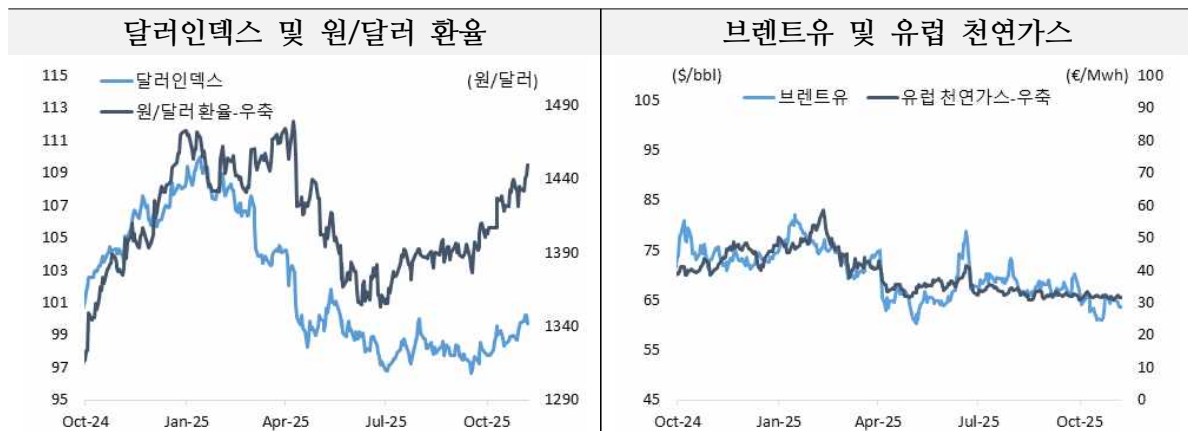
■ AI 버블 낙관론, 사회적 편익에 대한 과도한 미화일 가능성 - Financial Times

(Are bubbles good, actually?)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